

현대발레 작품에 표현된 무용의상디자인에 관한 연구

이 미 옥[†]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1. 서론

공연예술 작품의 주제와 이미지 전달을 가장 시각적이고 극적인 효과를 표현하는 무대의상은 단순한 무대장치의 보조수단이 아닌 공간예술로 관객인 지각자와 공연 기획자인 전달자간의 중요한 시각적 표현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무대의상 디자인의 전개는 '직접적인 접근'과 '간접적(추상적)인 접근'의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는데, 전자는 작품에 나타난 역사적 시기에 따른 고증으로 그대로 재현하거나 과거 특징을 바탕으로 수정을 하면서 디자인을 전개·제작하고, 후자는 작품 배경과 상관없이 새로이 설정하여 현대적으로 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¹⁾. 이렇게 디자인된 무대의상은 관객이 극중 인물의 외적인 모습을 통하여 역할 및 주제를 시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여 줄 뿐만 아니라, 무대의상디자인의 구성요소인 색채, 선, 소재의 재질과 광택, 실루엣, 조명과 결합되어 극중 인물의 개성과 역할 상징을 구체화하고, 과장을 통한 강조를 하여 극적인 효과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에 덧붙여 극중 인물이 무대에서 풍부한 감정을 통한 최상의 연기를 관객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활동 적합한 무대의상디자인의 기능적인 역할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무대위의 공연예술 요소인 무대장치, 무대조명, 무대분장 등과의 조화를 이루어 시각적인 통일감을 보여줌으로써 효과적인 무대 위에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하겠다.

무용의상은 무대의상의 한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배우가 아닌 무용수를 살아있는 작품 속 극중 인물로 관객들에게 시각화시켜 무대예술로서의 완성도에 기여하는 독창적인 전문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현대 발레 작품 속에서의 무용의상의 역할과 기능 및 표현 특징들을 무대의상디자인 조형 요소들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 본론

르네상스 시대의 사교무용인 궁정 춤에서 유래한 발레는 초창기에는 패턴을 갖춘 춤의 공연의 한 일부분일 뿐 극적인 스토리는 없었으나, 시대를 거쳐 가면서 무용을 통해 극적인 스토리를 전하는 형태로 바뀌었고, 오늘날 발레에 해당하는 용어나 형식은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다²⁾.

[†]교신저자 E-mail : happyeunso@enpal.com

1) Trevor R. Griffiths, Practical Theater (New Jersey Chartwell Books Inc., 1982), p 10

2) 정계은, "한국 무대의상디자인에 관한 고찰"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p. 18-24

현대발레의 시발점은 20세기 초반으로 안무·음악·무대 디자인의 총체적 공간 예술의 개념의 새로운 발레로 전환을 하면서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안무·음악·무대·의상을 통하여 극적 전개가 이루어지며, 각 분야를 담당하는 안무가·작곡가·무대연출가·의상디자이너는 조화 속에서 창작, 창작 속에서 극의 통일감을 이끌어 내어야 한다. 특히, 무대의상 디자인의 조형 요소인 선·색채·소재·조명을 통하여 무대 위에서의 효과를 시각적으로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것은 몸짓으로만 모든 감정과 개성 및 극중 역할까지 표현하여야 하는 발레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다.

이와 같은 총체적인 현대발레의 변화는 대중 문화예술의 부흥이라는 맥락에서 대중화를 이끌어 내었고, 그 결과의 하나로 무용의상디자이너가 무대 위에서 표현되어지는 무용수의 몸짓으로 작품의 주제와 이미지를 더욱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이다.

창백한 여인들이 순백의 무용의상을 입고 푸른 달빛아래 춤추는 현대발레의 대표적인 작품 “지젤”은 관객들에게 마치 이 세상이 아닌 듯한 착각과 신비감을 표현하였고, “백조의 호수”는 푸른 호숫가에서 백조들이 펼치는 환상적인 군무, 청초하고 순결한 오데트 공주와 사악한 흑조 오딜을 통해 무용의상과 선·색채·조명의 조형 요소들의 완벽한 조화와 통일감이 작품의 주제와 이미지와 함께 그대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결론

몸의 언어로서 예술성을 표현하는 발레³⁾는 현대 풍미하고 있는 포스터모더니즘의 한 특징인 시각적인 측면을 부각시켜 시각적인 공간 예술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발레 작품의 극적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한 요소로 무용의상의 역할이 부여되었다. 첫째, 무용의상디자이너는 발레 작품의 극중 인물의 역할 및 성격 묘사를 관객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안무를 충분히 시각화할 수 있는 심미적인 의상으로 디자인되어야 한다. 둘째, 무용의상에 입체감을 부여하는 소재의 질감과 작품의 주제와 극중 인물의 캐릭터를 전달하는데 효과적인 색채는 촉각과 시각을 자극하고 감성화하여 극중 인물의 성격과 외적·내적인 변화를 다양한 이미지로 표현하고 전달한다. 이러한 무용의상의 소재와 색채는 발레 동작에 따른 인체의 선의 특성과 그에 따른 의상의 실루엣의 시각적 변화를 고려하여 디자인되어야 한다. 셋째, 무용의상디자이너는 작품의 매순간 조명의 명암, 강약, 각도, 위치 등을 통해 다양한 시각적인 효과 가능성을 인지하여 조명의 입체적 표현이 작품의 이미지와 주제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발레 공연의 대중화와 더불어 무용의상 관련 종사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무용의상 제작환경과 저예산으로 인하여 무용의상디자인에 대한 인식과 현실 상황이 작품의 수준과 관객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을 인식하고 좀 더 무용의상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김나래 (2001). “현대발레의 에로티시즘.” 한국스포츠헌회지.
서순남 (1997). “현대발레의 작품성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 김나래, “현대 발레의 에로티시즘,” 한국체육학회지 (2001), p 556

- 윤여정, 이경희 (2003). “무용의상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의류학회지 27권 3/4호.
- 이희경 (1999). “현대발레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지연 (1994). “무대의상 디자이너 양성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재은 (2003). “한국 무대의상디자인에 관한 고찰.”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성원 (2002). “<랩랫>공연을 위한 무대의상 디자인.” 동서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Travor R. Giffiths (1982). *Practical Theater* (New Jersey: Chartwell Books Inc.)